

정례브리핑

2020.11.27(금) 10:30, 조혜실 부대변인(통일부)

안녕하십니까?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통일부 장관관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은 오늘 부내에서 업무를 볼 예정입니다.

차관은 오늘 오전 8시 차관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오늘 VOA에서 개성공단에 여러 물체의 움직임... 인원 움직임 포착됐다고 보도했는데 통일부가 관련해서 파악한 바 있는지 좀 알려주시고요.

그다음에 VOA에서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이렇게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된 게 처음이라고 평가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통일부도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관련 동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되거나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과거에 공단 내 가로등 점등, 출퇴근 버스의 간헐적 이

동 등 일부 관련 동향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동향을 지속 주시해 나가는 한편, 남북대화 복원을 통해 공단시설 점검 등 관련 문제들도 논의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VOA도 이 물체나 움직임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파악은 안 됐다고 했지만, 어떤 목적에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통일부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현재 저희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파악되거나 확인된 바가 없어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질문> 그러면 어제 장관님이 국회에서 코로나 백신·치료제 언급 다시 하시면서 치료제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내부 논의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궁금하거든요.

<답변>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관련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보고 있는 단계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없으시면 저희 입장을 밝힐 게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부는 어제 통일부가 이인영 장관과 왕이 부장 면담을 타진하였으나 중국 측에서 퇴짜를 놓았다는 어제 자 조선일보 보도에 대해 정정 보도를 청구하고, 강한 유감을 표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가 책임 있는 조치를 하지 않으면 조선일보가 통일부에 대해 '퇴짜'라는 표현을 사용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품격 있게 취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문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